

# 병상 확보 보건복지부 중심 추진

### 靑 병상확보TF 마지막 회의...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 50%대로 떨어져

문재인 대통령 특별 지시로 마련된 청와대 코로나19 병상확보 태스크포스(TF)가 지난 7일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전국 병상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져 안정을 찾아가며 따라 청와대는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TF는 이날 오후 5시 유명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구성 이후 병상 확충 실적을 점검하고, 하루 1만명 확장자 발생 시에 대비한 병상 확충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립대병원의 중증병상 확보 상황 군의관 지원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에서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토론했다.

앞서 TF는 지난달 20일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병상확보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청와대는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병상 문제를 직접 챙기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유 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지시 나온 당일 지난달 24일 1차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병상확보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후 첫 회의만 해도 80%대를 기록했던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꾸준히 감소해 최근 50%대까지 떨어지며 안정세를 찾지 못했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3%, 수도권 가동률은 55.3%를 기록했다.

지난달 중순 최대 800명을 초과했던

병상 대기자 문제도 전부 해소돼 지난달 28일 이후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는 없는 상황이다.

또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말까지 병상 확충 목표인 2255개 병상(중증·준중증 208개·중등증 2052개) 가운데 99.2%인 2238개 병상을 확보했다.

1월 말까지 추가 병상 확충 목표는 6944병상이며, 1월에도 이날까지 일주일 동안 616병상을 확충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생활치료센터도 2540병상을 확충해 당초 목표치인 2412병상 대비 105.6%를 확보했으며, 거점생활치료센터도 1044병상을 확충해 목표치 1084병상 대비 96.3%를 달성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확진자의 재택치료 배정 비중 역시 60%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재택치료 지원을 위한 관리

의료기관은 317개, 외래진료센터는 37개까지 확보했다.

아울러 정부는 확보한 병상의 신속한 운영을 위해 지난 6일 기준 3979명의 의료 인력도 파견 중이다.

이와 함께 모듈형 음압병상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는 병상 가동률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병상 운영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이날 3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하고, 일일 병상확보 이행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권덕철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 병상 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을 신설해 주간 확충 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일 점검하고, 장비와 의료 인력 등을 신속히 지원해 1월 병상 확충 목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전주시의회는 임인년 새해를 맞아 지난 7일 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합차게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 “자치분권시대, 시민과 함께”

### 전주시의회 신년인사회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는 임인년 새해를 맞아 지난 7일 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합차게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동화 의장을 비롯한 34명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의원 윤리강령 낭독, 신년사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강동화 의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지나왔으나, 새해를 맞아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마음가짐으로 큰 발전과 성장의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서 “2022년에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이 중심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주민 주권이 한층 더 강화되는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가 열린다”며 “전주시의회는 적극적으로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며 선진정치를 구현하고, 시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김윤상 기자

### 진형석 도의원, 민주 전북

#### 4050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 4050위원회 전북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4050위원회는 각 분야의 현장에서 주축 활동을 하는 40대~50대의 현안을 대변하고 조직 강화로 대선 승리를 위한 중앙당 상설 특별위원회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4050위원회”는 도내 청년층과 노년층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4050세대의 정책제언과 지역의 청년정치인 발굴을 통한 정권 재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다.

진형석 의원은 “사회에서 활동 중인 중·장년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에 세대 간 현안을 공유하고 전복의 현안을 발굴해 정책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정권 재창출의 든든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역과 현장의 중심에서 최선을 다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선대위 기구인 4050특별위원회 전북발대식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유호상 기자



“대선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왼쪽부터)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박용진 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대선 승리 다짐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정책 도입할 것”

### 민주 이재명 대선후보 “부모가 같이 키워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7일 여성은 물론 남성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주제로 진행된 배타리스, 국민반상회에서 ‘아버지 육아휴직자들은 늘어나는데 실제적 뒷받침은 적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육아휴직을 주로 여성이 이용하고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데 아빠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다. 눈치가 보여서라며 ‘네덜란드 어디가는 강제로 한다’고 한다. 아빠가 이용을 안 하면 엄마도 이용을 못 하게 패럴택(불이익)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적으로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암마도 이용하지 못하게 그런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아빠가 이용 안 하면 부부가 다 손해 보게”라며 “그러니 사회적으로 아빠가 이용하는 게 당연하지(라는) 문화도 만들어진다 우리 사회에도 그런 도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일부 민간기업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저는 사실 정책으로 직접 시행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자녀를 출산하면 엄마만 키우는 게 아니고 원래 부모가 같이 키우는 것”이라며 “육아휴직도 엄마만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다 같이 하는 것이고 공평하게 같이 육아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회에 사인을 주는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7일 여성은 물론 남성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니잖냐. 그건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중 공공 키즈카페와 장난감도서관 등을 만든 경험을 언급하면서 보육 영역에서 공공의 역할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키즈카페도 그렇지만 공공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들면 민간어린이집도 영향을 받아서 안 타갑기는 한데 공공의 역할 늘리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것이 서로 죽이기 놀이한 것”이라며 “아빠와 아들이 서로 죽어라 총 쏘고 칼로 막 (찌르고 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어떻게 놀이도 그렇게 노냐 죽여가면서 (라고 후회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뉴시스

### 안철수, 단일화 입장 고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화 관련 민남을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질문에 “만나자고 하면 만날수는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치인이 만나자는 요청이 오면 누구라도 만날 이유는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일화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음을 못 박았다.

안 후보는 이날 충청남도 천안 국립민방위동산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모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때이다. 그래서 저는 경솔하게 목록하게 제가 갈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전북 시군의장협, 군산시의회서 간담회

#### 지방자치 발전방안 모색

#### 강임준 군산시장에 감사패

#### 김영일 부의장에 방문기념패

전북 시군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가 지난 7일 군산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군의회 의정취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협의,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제반사항 논의 등 상호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시행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은 “군산시를 방문해 주신 시군의장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는 물론 도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반드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군이 지역을 뛰어넘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강동화 협의회장은 “올해는 30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전면시행으로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려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라며 “앞으로 전북 시·군의회가 긴밀한 협력체제로 공조 대응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한편 전북 시군의장협의회는 강임준 군산시장에 감사패를 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에게 방문기념패를 전달했다. /김윤상 기자

### 산업재해 안전관리전문기관 역할 확대

#### 윤준병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7일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용자·노동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의무사항을 각기 강화하고 연계된 법적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천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다가, 이미 현행법 제17조와 제20조 등 여러 곳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별로 높지 않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 법안을 준비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사업주가 안전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노동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준수율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작업중지 조치를 할 것을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해야 하는 등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시행규칙에 머물러 있던 노동자의 보호구 착용 의무 등을 법률규정으로 올렸고, 노동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보호구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 예방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고, 특히 사용자와 노동자가 신체에방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에, 사용자·근로자·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산업현장 행위주체들의 안전의무를 공히 강화하고, 연계된 법적규정 개선을 통해 책임도 더 많이 물도록 하겠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